



CEO Brief

2022.10. 제2022-16호

CEO Brief는 보험산업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보험회사 CEO와 유관기관의 기관장분들께만 제공되는 리포트입니다.

2023년 보험산업 과제¹⁾

요약

2023년 보험산업은 경기 불확실성, 제도 불확실성, 수요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단기적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환경에서 자산건전성과 유동성 관리에 주력하면서 견실한 자본 관리와 적극적인 장기투자를 통하여 보험공급과 시장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장기 추세적으로는 IFRS와 친환경·친사회(ESG)의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고 소비자의 구성 변화가 보험수요로 연결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함. 따라서 IFRS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경영의 시계(Time horizon)를 장기에 맞추고,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을 사업모형에 내재화하는 데에 보험산업이 주력해야 할 것임

1. 장·단기 불확실성에 직면한 보험산업

- 하반기 기준금리가 보다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장단기 금리는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음
 - 금리 상승으로 채권 등 자산 가격이 조정되고 취약가계 및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음
 - 또한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기준금리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그동안 소폭으로 진행된 국내 기준금리 조정 폭의 확대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 한편, 장단기 금리 간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 IFRS17과 친환경·친사회(ESG) 관련 공시는 각각 2023년과 2025년 제도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나 그 영향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기존의 상품구성과 채널전략으로는 디지털 환경과 1~2인 가구 중심으로 소비자 니즈가 변화하고 있기에 보험회사가 보험수요에 대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임

2. 보험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 단기적으로는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보험회사는 자산건전성과 유동성 관리에 주력해야 할 것임
 - 금리급등에 따른 대출 관련 신용리스크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환헤지 비용 증가 및 차환리스크 노출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1) 2022년 10월 6일 오전에 개최된 「2023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의 과제 부문 발표를 요약한 것임



CEO Brief

- 지속되는 물가 상승은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보험금 상승과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보험금 및 자본 관리가 중요하며, 물가 상승기에 금융당국의 가격규제 유인과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증가할 것이나 시장기능 중심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보험 가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관련 규제의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여 시장이 보험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보험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쌓아가는 수익 경영, 그리고 상품과 자산운용을 연계하여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의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본 구성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보험계약 재매입 (Buyback) 등 부채 구조조정 인프라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장기투자는 위기 시 시장의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므로 장기투자 유인이 강한 보험회사와 금융안정을 꾀하는 금융당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장기대체투자자 시장안정펀드는 변동성이 커진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

3.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확장성 있는 사업모형으로 전환

- 보험산업은 개인보험과 국내보험에 한정된 시장의 경계를 확장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보험을 공급함으로써, 시장포화의 틀을 깨고 보장격차에 따른 수요에 보험이 적절한 보장수단이 될 수 있도록 상품 및 채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전체 가구의 2/3를 차지하는 1~2인 가구, 세대별 위험관리, 중소기업의 위험관리를 토대로 시장을 세분화하고, 전자금융업 및 자산관리업 등과 융합할 수 있도록 사업모형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인슈어테크,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입과 적절한 규제, 또는 계약 재매입 등 자율적인 퇴출 수단이 보험시장을 보다 역동적으로 만들 것임
- 보험산업은 디지털 전환 및 그린 전환, 그리고 IFRS17이 시사하는 장기 시계(Time horizon) 경영을 사업모형에 내재화하여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함
 - IFRS17, IFRS-S 등과 같은 국제규범이 담고 있는 평가와 공시는 시장 이해관계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투자자 및 소비자와의 관계를 장기적이고 생산적으로 가져가는 시장규율을 정착시키는 기초를 마련할 것이므로 보험산업은 이를 사업모형에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함

김해식 연구위원

haeskim@kiri.or.kr